

종이학

S#1 학교(교내) / 아침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학교. 창가 자리에 누워 핸드폰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는 지아. 느릿한 손짓으로 검색창에 단어를 적어나간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 하염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핸드폰을 바라보기만 하던 지아는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살짝 허리를 세운다. 지아의 시선이 방금 자리에 앉은 한 학생에게 닿는다.

다시 고개를 돌려 핸드폰 스크롤을 내리는 지아. 이윽고, 그 손이 멈춘다. 고민하는 듯 눈동자를 굴리기도 하며 손끝을 매만진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부스스한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자세를 고쳐 앉은 지아는 어수선한 책상 안을 뒤적이며 색종이 하나를 꺼낸다. 색종이로 종이학을 접기 시작하는 지아. 완성된 종이학은 어딘가 불품없고 영성하다.

영망인 종이학의 날개를 만져보다 창밖을 바라보는 지아가 중얼거린다.

지아 : 1000마리….

S#2 지아의 원룸 /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 지아. 침대에 앉아있다 비몽사몽한 발걸음으로 책상에 앉은 지아가 서랍에서 색종이를 꺼내 종이학을 접기 시작한다. 종이학을 다 완성하고 나서야 옷을 입고 등교할 준비를 하는 지아. 영망진창으로 등교 준비를 하던 지아는 잇을 뻔했던 종이학을 들고 급하게 집을 나선다.

S#3 주택가 / 아침

뛰어가다 지나칠 뻔한 담벼락 앞에서 멈춰선 지아는 담벼락 위 유리병에 종이학을 한 마리 채워 넣으며 부드럽게 미소짓는다.

(V.O) 민서 : (불만스럽게 팔짱 끼고) 또야?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지아가 몸을 돌리자 단짝 친구인 지수가 있다. 불만스럽게 지아를 쳐다보는 민서를 향해 지아는 환하게 웃어준다.

지아 : 응! 어때? (유리병을 들어 보여주며)

지아가 들어 보여준 유리병을 한참 바라보던 지아는 팔짱을 풀더니 몸을 돌리며 한숨을 내신다. 짝다리를 짚으며 고개를 까딱이는 지수의 모습은 지아의 모습을 언짢게 보는 듯했다.

민서 :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지아를 바라보는 민서, 곧 대답을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린다.

(OVERLAP)

S#. 종이학 몽타주

- 종이학을 접고, 집을 나서고 담벼락에 있는 유리병에 종이학을 채워 넣고 민서를 향해 웃어 주는 지아, 넘실거리는 유리병 내, 쌓여가는 종이학.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이 계절이 변하도록 이어진다. 3번의 봄, 3번의 여름, 3번의 가을, 그리고 2번의 겨울. 그 시간 속, 지아는 신났던 날도 피곤했던 날도 모두 담벼락 앞에서는 행복해 보인다.
- 과거 > 현재로의 이동을 유리병에 채워지는 종이학의 수의 변화로 보여준다.

S#4 지아의 원룸 /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 지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지아가 책상에 앉아 서랍에서 색종이를 꺼낸 뒤 종이학을 접기 시작한다. 처음과 달리 능숙해 보이는 손길로 완성된 종이학은 깔끔하다. 만족한 듯 종이학을 매만지다 의자에서 일어난 지아는 여유롭게 등교 준비를 시작한다. 잊지 않고 종이학을 챙겨나가는 지아의 발걸음이 유독 가볍다.

S#5 주택가 / 아침

주택가를 거니는 지아의 발걸음은 들떠 보이고 흥겹다. 어느샌가 종이학이 담긴 담벼락 앞에 멈춰 선 지아는 유리병 안에 종이학을 넣은 뒤 가방에서 뚜껑을 꺼낸다. 담벼락 위에 있는 유리병을 조심스레 든 지아는 천천히 뚜껑을 닫는다.

(V.O) 민서 : 또야?

지아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 유리병을 움켜쥔 채 민서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자리를 한참 바라보는 지아. 지아는 유리병을 바라보다 그를 소중한게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뛰어간다.

/

지아가 주택가에서 사라지고 골목길로 들어오는 민서. 민서는 담벼락이 놓여있는 장소에 유리병이 없는 것을 보고 인상을 쓴다. 이후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로 사라지는 민서.

S#6 학교(교외~교내) / 아침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학교. 복도는 한 교실을 둘러싼 학생들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등교하는 누군가에게 복도에서 학생들이 말을 걸어온다.

학생A : 얼른 교실에 가봐, 대박이야!

학생 A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책상 앞에서 멈춰 선 학생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종이학이 든 유리병을 한참 바라보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올려 든다. 수능 파이팅! 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본 민서가 고개를 돌려 지아를 바라본다. 그런 민서를 보며 손을 흔들며 웃는 지아. 매우 환한 미소였다.

S#7 놀이터 / 저녁

그네를 타고 있는 지아와 민서. 신나게 그네를 타고 있는 지아와 달리 종이병을 안고 있는 민서는 지아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기만 한다.

민서 : 고마워.

그네에서 뛰어내린 지아가 민서의 그네 앞으로 오며 신난다는 듯이 웃어준다.

지아 : 어땠어? 놀랐지!

민서 : 응, 덕분에 긴장도 많이 안 했고 수능...도 잘 쳤어.

유리병을 만지작거리다가 지아와 눈을 맞춘 민서.

민서: 그보다 이런 이벤트를 준비할 거면 미리 말 해달라고!

지아 : 원래 이런 건 서프라이즈로 해야 돼!

민서 : 그래서 3년이나 비밀로 했어?

멋쩍게 웃는 지아와 그런 지아의 모습에 마지못해 웃는 민서.